

『東遊記』 試論

金道榮*

<목 차>

1. 序言: 『四遊記』
2. 『東遊記』의 八仙來歷
3. 『東遊記』의 八仙形象
4. 小説 『東遊記』의 意義
5. 結語

1. 序言: 『四遊記』에 관하여

최근에 중국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중국문화의 基層을 형성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사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히 유교적인 전통을 지닌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신적 사유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중국문화 - 종교·회화·회극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및 서구의 중국문학연구자들에게 최근까지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明代 四種의 神魔短篇小説이 있다.

이 4부 神魔短篇小説이 바로 『南游記』¹⁾·『西遊記』²⁾, 北方의 眞武玄天

* 고려대 증문과 강사.

- 1) 『南游記』(일명, 『五顯靈官大帝華光天王傳』, 총 4권 18회)는 余象升 題. 華光의 내력 및 敎母 故事로 華光이 요괴를 무찌르는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四遊記』중에서 그 구상이 풍부하고 문자 또한 비교적 생동하며 광채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 2) 『西遊記』(총 4권 41회)는 “齊雲 楊志和 編, 天水 趙景眞 校” 題. 손오공이 득도하고, 당 太宗이 冥府로 들어가, 玄奘의 부름에 응하여 도중에 고난을 만나나 마침내 西土에 이르러 經을 구하여 돌아오는 것을 서술했다.

上帝의 巡遊고사를 서술하고 있는 『北遊記』³⁾,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가 八仙의 모험을 서술한 『東遊記』의 合集인 『四遊記』이다. 이 4부 소설은 東西南北으로 여행을 떠나는 '遊記'고사로서 항상 合集인 『四遊記』의 이름으로 민간에 유통되었다. 이 4부 '遊記'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魯迅의 『中國小說史略』에서 소개⁴⁾하고 있으나, 이 『四遊記』는 동일한 이름을 지닌 오승은의 100회본 『西遊記』에 비해 고전문학연구자들 사이에서 흥미를 끌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四遊記』의 다른 세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주목도 100회본 『西遊記』의 板本史⁵⁾와 관련된 선후문제 내지는 전승의 범위내에서 관련되어 온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추세였다. 또한 『東遊記』·『南遊記』·『北遊記』는 지금까지 문학적으로도 조잡하고 졸렬한 구조와 덜 세련된 스타일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⁶⁾

하지만 이들 두 작품에 비해, 먼저 余象斗가 撰한 『四遊記』중에서 가장 첫머리에 있는 吳元泰의 『東遊記』(일명 『上洞八仙傳』 혹은 『八仙出外東遊記傳』, 총 2권 56회)는 중국의 민간에 널리 퍼진 八仙전설을 언급할 때면 항상 그 중요한 전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다른 백화소설에 비해 위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항상 주변을 맴도

3) 『北遊記』(일명 『北方眞武玄天上帝出身志傳』, 총 4권 24회). 余象斗 撰. 隋煬帝 때, 천상의 玉帝가 囑연히 俗念이 일어나 三魂을 하계로 보내 哥蘭國·西霞國·淨洛國의 왕자로 태생시킨다. 이들은 天將을 부여받아 神魔를 항복시키고 갖은 풍파를 다 경험하고 대대로 수행을 닦아 결국 正果를 이루어 '混元九天萬法教主'로 봉해져서 天將 36명을 거느리고 下界巡遊하는 고사를 기술하고 있다.

4) 魯迅·정범진 역, 『中國小說史略』, 학연사, 1998, 172-180쪽.

5) 이소베 아카라(磯部 彰) 역시 楊本·吳本·朱本の 선후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정점의 하나라고 언급하며 이 판본문제가 노신의 『中國小說史略』에서 비롯되었으며 호적의 『西遊記考證』으로 논쟁에 불씨를 당긴 것으로 보았다. 뒤이어 정진탁·孫楷第·柳存仁·Dr. Dudbridge 등이 각자 상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磯部 彰 著·나선희 譯, 『西遊記 研究史』, 『東亞文化』 제33집, 1995, 12.

6) 게다가 『南遊記』와 『北遊記』의 내용은 중국의 민간문학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어떠한 연관성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흥미를 끌지 못했다. 특히 이 두 작품은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는 데 그쳤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연구⁷⁾도 본고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음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부득불 『東遊記』를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음아닌 다음의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4折로 표현되는 元雜劇의 고유형식 때문에 八仙을 총망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雜劇에서 표현하지 못한 나머지 신선들에 대한 궁금증을 소설 『東遊記』가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東遊記』는 八仙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來歷과 가장 정채로운 「八仙過海, 各顯神通」 등의 故事를 전하는 중요한 전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東遊記』의 八仙형상은 민간전설·희곡 등의 기타 문학장르와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호 비교연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東遊記』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 기층민들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음과 같이 『東遊記』에 나타나는 八仙의 來歷, 특히 『東遊記』속에서 부각된 八仙의 形象과 소설 『東遊記』가 갖는 문학적인 意義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2. 『東遊記』의 八仙來歷

『東遊記』의 八仙來歷을 고찰하는 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송 이후 신선설화의 뚜렷한 변모로 인해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자주 등장했던 과거 赤松子·安期生·王子喬·浮丘公 등의 古仙들이 설화의 무대에서 대거 퇴장한다는 사실이다.⁸⁾ 그리고 신세대 신선인 八仙⁹⁾이 등

7) 조선시대에 전래된 중국소설의 삽화가 실려있으며, 이 가운데 『東遊記』도 포함되어 있다. 完山李氏 序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출판부, 1993, 170쪽.

장하여 새로운 신격으로 민간에서 숭배된다.¹⁰⁾ 이러한 새로운 신선인八仙¹¹⁾의 得道事跡을 중심으로 『東游記』의 전반부가 기술되고 있다.

이 득도고사는 팔선의 내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팔선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제1회에서 제10회까지는 鐵拐李의 得道事跡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鐵拐의 성은 李이며 이름은 玄인데, 鐵拐李는 바로 後身의 別名을 가리킨다. 그의 前身은 모습이 장대하였으며, 大道와 金丹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뜻을 세워 修道하기 위해, 華山에 이르러 太上老君과 宛邱先生을 배알하고 道를 물었다. 돌아온 뒤에 바윗굴과 산림에서 기거하며 수련하였다. 하루는 老君과의 약속에 응하여, 老君을 따라 西域을 유람하였는데, 제자 楊子에게 그의 육신을 7일 동안 지키도록 분부하였다. 6일째 되는 날, 楊子는 모친의 병이 위독하여, 부득이 시신을 불태워 버렸는데, 鐵拐가 7일째가 되어 돌아와 보니 魂이 들어갈 곳이 없어져 버려, 이에 굶어죽은 시신에 들어가 살아났는데, 흐트러진 머리와 다 떨어진 머리띠에 때진 얼굴로 넓고 평평한 배와 절름발이의 물골을 하고, 또 굶어죽은 이의 자주색 지팡이를 변화시켜

8)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120쪽.

9) 八仙은 漢鍾離·呂洞賓·張果老·鐵拐李·韓湘子·曹國舅·藍采和·何仙姑를 가리키며, 徐神翁과 何仙姑가 종종 뒤바뀌고 대부분은 何仙姑를 취하고 있는 등 팔선에 대한 이설이 분분하나 1952년 山西省 文物관리위원회가 이 성의 永樂鎮에서 원대의 전진교 도판인 純陽萬壽宮을 발견하였는데 궁내의 순양전 후문의 처마에 있는 「八仙過海圖」에서는 徐神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何仙姑를 취하고 있다. 馬焯榮, 「中國傳統文化與古典戲曲」, 『戲曲研究』, 1990, 2, 26쪽.

10) 본래 八九는 多數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이르거는 周易의 '八卦'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八方·八達·八音·八珍·八駿 등이 있는데 모두가 '원만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덟신선의 八仙故事는 중국 민간에서 대단히 널리 유행되었는데, 唐代에 이미 『八仙圖』·江積의 『八仙傳』 등이 있으며, 元 戲曲에서는 八仙의 형상이 더욱 빈번하게 출현했지만, 宋元代는 八仙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었다. 明代 소설 『東游記』에 이르러 八仙의 성명이 비로소 확정되었으며, 八仙의 得道와 이적전설에 관한 것이 매우 많지만, 또 서로간에 평강히 다르다.

11) 중국에는 원래 八로써 말하는 전통이 있었다. 『神仙傳』에는 한 회남양 유안의 八公고사가 있었다. 또한 두보의 시 가운데 「飲中八仙」이 있는데 이들은 당대의 시인을 가리킨다. 이후 당송대 이후 다량의 신선고사가 출현하면서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中國社會科學院世界宗教所 道教研究室, 『道教文化面面觀』, 齊魯書社, 1992, 68-70쪽.

짚고 길을 갔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성명을 알지 못했으며, 단지 鐵拐先生이라고 불렀다. 또 일찍이 老君의 靑牛를 장난으로 놓아주어, 下界로 귀양와서, 늙은이로 변하여 약을 써서 여러번 費長房¹²⁾을 시험하였다.¹³⁾

이상의 내용은 민간에서 '藥仙'이라고도 불리며, 민생을 구제한 鐵拐李傳說¹⁴⁾과 그 신선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하다. 예를 들면 '절름발이의 물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기층민의 다양한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11회부터 제18회는 漢鍾離의 득도고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鍾離權은 燕臺人인데, 후에 覺으로 개명하였고, 字는 寂道, 號는 和合子, 또는 正陽子·雲房先生이라 號하였다. 漢에서 大將으로 벼슬하였는데, 병사를 거느리고 吐蕃과 싸워 먼저 승리하였다. 때마침 鐵拐가 공중으로 지나가다가, 그의 道가 뛰어난을 보고는 공을 이루어 候에 封해지고 작위가 더해지면 大道를 그르칠까 걱정되어 변신하여 藩將을 도와 鍾離를 패배시켰다. 鍾離는 패하고 돌아와 집을 버리고 求道하여, 결국 神仙이 되었다.'¹⁵⁾

위의 鍾離權 得道事迹에서는 그의 심볼인 '쌍투·부채와 호로병'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傳記式 전개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제19회 '采和持拍踏歌'는 藍采和得道故事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藍采和는 赤脚大仙이 강성한 것인데, 항상 찢어지고 남루한 적삼과 허리띠

12) 明 洪應明(1624, 字: 自誠, 號: 還初道人)의 『仙佛奇踪』(이를 『洪氏仙佛奇踪』이라고도 한다) 卷2에 전하는 삽화와 기록에 따르면 費長房은 汝南人으로 시장에서 약을 파는 일에 종사하였으나, 특히 仙道를 좋아하였으며 나중에는 호로병 속을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었다.

13) 余象斗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1-11쪽, 내용 요약.

14) 『藥仙』, 搜集整理: 歇晨德律, 流傳地區: 江蘇濱海縣. 陳曉勤, 『中國仙話』, 上海文藝出版社, 1990, 160-161쪽 내용 요약.

15) 余象斗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11-16쪽.

를 하고서, 한쪽 발은 신을 신고, 한쪽은 맨발이었다. 여름이면 적삼 안에 솜을 더 두어 입고서도 땀을 흘리지 않으며, 겨울에는 홑옷으로 눈에 누워도 귀·입·코에서는 기운이 증기처럼 나왔다. 城市에서 돈을 구걸할 때면 언제나, 손에는三尺 남짓한 큰 拍板을 잡고서, 취하면 노래를 불러, 노인이나 아이가 모두 그를 따라가며 구경했다. 후에 鐵拐를 만나 道를 이야기하였으며¹⁶⁾, 白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¹⁷⁾

이상의 제19회 내용은 藍采和의 심볼이 왜 '작작이'인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藍采和가 부르는 12首의 歌詞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 다른 신선들의 得道事迹과는 구별된다.

제20회에서 제21회는 張果老의 득도고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張果老는 혼돈 이래로 흰 박쥐였다. 천지의 기운을 받아 사람이 되었으며, 후에 恒州의 中條山에 은거하면서 宛邱·鐵拐 등 여러 神仙과 道를 논할 수 있었다. 항상 흰 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녔으며, 한 나절에 수백 리를 갈 수 있었다. 휴식을 취할 때는 나귀를 종이처럼 접었는데, 그 두께가 종이 한 장과 같았으며, 그것을 상자에 넣어두었다가 탈 때에는 물을 뿌리면 다시 나귀가 되었다. 開元年間에 明皇의 초빙으로 東都에 이르러, 누차 기적을 나타냈으며, 通玄先生이라는 號를 하사받았다. 후에 恒州로 돌아왔으며, 시신이 없어서 仙班에 들어갔다. 황제는 棲霞觀을 세워 그를 제사지냈다.¹⁸⁾

위의 내용은 何首烏를 다 먹어버려 웃음을 자아내던 민간의 張果老 傳說¹⁹⁾과는 아주 다르다. 하지만 鍾離權 得道事迹과 마찬가지로 傳記式 서술을 하고 있고, 張果老의 이야기를 최초로 전하고 있는 唐人의 『明皇雜錄』²⁰⁾과 위의 내용은 大同小異하다.

16) 이 고사는 작자미상의 元人雜劇 『漢鍾離度脫藍采和』에 전하고 있다.

17) 余象斗等 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19쪽.

18) 余象斗等 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21-22쪽.

19) 『倒騎毛驢』, 講述: 劉仁甫, 搜集整理: 朱洪喜·劉永勝, 流傳地區: 淮河中上游一帶. 陳曉動, 『中國仙話』, 1990, 168-171쪽, 내용 요약.

제22회 '仙姑得夢成仙'은 何仙姑의 득도고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何仙姑는 廣東 增城縣 何泰의 딸이었다. 唐 측천무후 때에 神人이 雲母粉을 먹도록 해주는 꿈을 꾸고서 몸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개울에서 鐵拐·采和를 만나서 仙訣을 전수받고서 마침내 飛翔할 수 있었다. 武后는 사신을 파견하여 대궐에 오도록 하였으나, 도중에 없어졌다. 景龍中은 鐵拐가 인도하여 대낮에 날아 올라갔다.'²¹⁾

제22회의 내용은 '백설공주(何仙姑)와 7난장이(七仙)'에 비견되던 민간의 何仙姑傳說²²⁾보다 훨씬 간략하며, 그녀의 심볼이 왜 '대바구니'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제23회에서 제29회는 呂洞賓의 득도고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呂洞賓은 성이 呂이고 이름은 岩이며, 字는 洞賓, 號는 純陽子인데, 東華真人의 後身이다. 唐 蒲州 永樂縣人으로, 태어나면서 특이하였고, 會昌中에 두 번 과거를 보았으나 進士에 급제하지 못했다. 64세에 長安의 술집에서 鍾離權을 만나 깨우침을 받았는데, 후에 鍾離가 洞賓을 열번 시험하고서야, 신선이 되었다. 또 기녀 白牡丹을 희롱하였다.'²³⁾

『東遊記』의 呂洞賓 得道고사는 민간전설과 대체로 일치하며, 그의 심볼이 '보검'이 된 연유를 民間傳說²⁴⁾에서는 흥미를 증폭시키기 위해 그럴

20) 『道士張果』편에 '당나라 현종이 그의 누이동생 玉眞公主를 張果에게 시집보내려고 했으나 張果가 "사람들은 이를 기뻐하지만 나는 심히 두려운 바다"라고 하며 현종의 제의를 거절하고 나귀타고 유유히 사라지며 천하를 주유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唐) 鄭處誨 撰·田廷柱 點校, 『明皇雜錄』(唐宋史料筆記叢刊), 中華書局, 1994, 30-32쪽.

21) 余象斗 等 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22쪽.

22) 『何仙姑成仙』, 講述: 李恒瑞, 流傳地區: 湖南汨羅一帶. 陳曉動, 『中國仙話』, 上海文藝出版社, 1990, 184-185쪽, 내용 요약.

23) 余象斗 等 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23-29쪽.

24) 『呂洞賓與蛇精』, 搜集整理: 吳志慶, 流傳地區: 浙江寧波一帶. 陳曉動, 『中國仙話』, 上海文藝出版社, 1990, 148-150쪽, 내용 요약.

싸하게 포장·윤색된 것으로 보인다.

제30회에서 제31회는 韓湘子의 득도고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韓湘子는 字가 猶夫이며, 당나라 韓愈의 조카인데, 黃白의 術에 심취하였다. 하루는 스승을 찾아가 道를 물어보려 외출했다가, 鍾離權·呂洞賓을 만나 집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 노닐었는데, 후에 신선이 되었다. 韓愈를 신선이 되게 하고자 하여, 술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法術을 부렸다. 韓愈는 佛骨을 맞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상소를 간하다가 潮州로 귀양갔는데 눈 때문에 길이 막히자, 눈을 치우고 숙부를 구하여, 후에 결국 韓愈를 신선이 되게 하였다.’²⁵⁾

상술한 내용 역시 韓湘子의 심불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술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法術을 부리는 내용은 韓湘子의 민간전설과는 대체로 유사하다.

제45회 ‘國舅學道登仙’은 曹國舅의 득도 고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曹國舅은 宋太后的 동생으로 이름은 友였다. 그의 동생 曹二는 황실일가를 모시는 친척으로 악한 짓을 많이 하였으며,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을 모두 나누어주고, 산림에 은거하였는데, 鍾離權·呂洞賓에 의해 신선이 되었다.’²⁶⁾

『東遊記』의 내용은 민간의 曹國舅傳說²⁷⁾과 거의 유사하다. 특히 曹國舅은 八仙 가운데 事迹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어, 그의 심불인 ‘왕족상징의 흘패’가 때때로 藍采和의 ‘짝짝이’와 혼동되어 민간에 流轉되기도 하였다.

25) 余象斗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30-31쪽.

26) 余象斗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41쪽.

27) 『曹國舅學仙』, 講述: 劉文運, 搜集整理: 何標瑞, 流傳地區: 靖安縣. 陳曉勳, 『中國仙話』, 上海文藝出版社, 1990, 182-183쪽, 내용 요약.

이들 『東遊記』의 八仙 득도고사를 통해 민간전설과 때로는 유사하게, 때로는 상이하게 나타나는 八仙의 來歷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은 『東遊記』 후반부에서 전개되는 八仙의 形象이 어떠한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3. 『東遊記』의 八仙形象

『東遊記』²⁸⁾의 八仙형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元代的 雜劇에 나타난 팔선의 형상은 北方 全眞敎의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東遊記』에는 이러한 종교적 색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東遊記』는 元代的 雜劇에 비해 쉬우면서도 오락적인 기능이 강화되어 민중과 가까워져 삼교융합의 정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八仙의 형상이 小說 『東遊記』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알아보자. 실제로 전반부 제1회부터 제45회까지는 八仙의 得道事跡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八仙의 내력을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八仙의 형상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후반부 제46회부터 제56회까지의 '八仙過海闢龍宮'의 내용은 팔선 가운데 특히 張果老·呂洞賓의 형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소설 『東遊記』란 題名에 걸맞게 제46회에서 서왕모의 蟠桃大會에서 동빈이 제안하자 八仙 모두가 “그렇다”고 동의하며 동쪽으로 遊

28) 현대 중국소설로 劉錫民的 『八仙東遊記』(山東文藝出版社, 1985)가 있는데, 이는 吳元泰의 『東遊記』에 근거하여 현대중국어로 개편하였고, 간략하게 내용만을 전달하던 吳元泰의 것에 비해 그 문장이 세밀하고 생동하며 총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吳元泰의 『東遊記』와 제목만 동일하며 그 내용에서는 무관한 日人 平秩東작의 동쪽 홋카이도(北海島)를 유람한 『東遊記』(北門叢書(二冊), 圖書刊行會, (昭和47)1972)가 있다.

覽을 떠나는 것으로 본격적인 八仙의 『東游記』가 시작된다. 여기에서 소설 『東游記』의 이름이 유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東游하다 過海를 하면서 용궁을 들썩거리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1) 張果老의 形象

소설 『東游記』 후반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형상은 무엇보다도 張果老이다. 그러면 다음의 작품 속에서 그 형상을 살펴기로 한다.

제47회 '八仙蟠桃大會'에서 서왕모의 생일잔치를 맞이하여 八仙이 등장하여 서왕모의 축수를 빈다. 이 때의 풍경은 완전히 흥건한 잔치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한바탕 왁자지껄 떠들며 흥금을 터놓고 술이 곧드레 만드레 취해서 비틀비틀거린다. 이 때 동빈이 이 돌구어진 흥을 타서 동쪽으로 유람을 떠나자고 제안하자 鐵拐李가 좋다고 대답한다. 이에 張果老가 오늘은 너무 술에 취했으니 다음을 기약하자고 제안하지만, 鍾離가 이렇게 다 모이기가 쉽지 않고 흥 또한 이렇듯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하며 龍華會가 바로 있으니 이 유람 겸 龍華會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며 맛장구를 치자 八仙 모두가 "그렇다"고 동의하며 동쪽으로 유람을 떠난다.²⁹⁾

제52회 '龍王水灌八仙'에서 남해로 도망친 용왕은 남해용왕 敖閨의 묘책을 받아들여 자신의 용궁을 차지하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八仙을 溺死시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다들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즈음 나이 많은 張果老는 울베미처럼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동해용왕이 원병을 요청하여 진격해 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골아떨어진 신선들을 깨워 도망친다. 다시 용궁을 차지한 용왕은 승리에 취해 주연을 베푼다.³⁰⁾

제55회 '八仙天兵大戰'에서 龍華會의 주연을 즐기던 八仙은 들이닥친 天兵에게 당당히 맞서 "웅당 玉帝에게 자초지종을 알린 후에 우리를 벌해도 늦지

29) 余象斗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43쪽.

30) 余象斗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47쪽.

않다”고 말한다. 趙元帥가 4가지 죄를 들먹이자 동빈은“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대꾸한다. 趙元帥가 동해용왕이라고 말하자 동빈은 “어떻게 한편의 말만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한다. 꼬박꼬박 말대꾸에 대노한 趙元帥가 칼을 들이대지만 동빈은 감히 天兵과 맞서지 못하고 도망친다. 이 때 鍾離는 용왕의 군대가 뒤에 잠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大怒한다. 趙元帥는 도망치는 동빈을 쫓아가다가 다가오는 鍾離와 약 200여 합 정도의 칼을 겨루지만 승부가 나지 않는다. 잠복한 동해용왕이 칼을 들고 달려들자 동빈이 이에 맞서 20여 합을 겨룬다. 또 남해용왕이 출정하여 韓淵자가 맞서며, 또 사해용왕이 모두 출정하여 八仙와 힘을 겨루지만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렇듯 옥신각신 싸우다가 용왕의 군대가 패하여 도망치고 趙元帥의 칼이 땅에 떨어진다. 이들을 몰아내고 八仙은 술을 마시며 자축하지만 張果老는 “오늘 비록 승리했지만 玉帛을 거스른 꼴이니 내일 분명 大兵이 밀려들 것이다” 이 때 齊天大聖도 이 酒會에 참석했었는데, 자기가 전군을 몰살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안심하고 八仙은 다시 술을 마신다.³¹⁾

이상의 내용으로 八仙 가운데 그 두드러지는 형상, 다름아닌 張果老를 살펴볼 수 있었다. 민간전설에서는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던 張果老가 『東遊記』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를들면, 제47회에서 동빈이 이 돌구어진 홍을 타서 동쪽으로 유람을 떠나자는 제안에 다른 七仙은 모두 “可”라고 하며 찬동하지만 유일하게 張果老만이 “오늘은 너무 술에 취했으니 다음을 기약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에서, 술취한 채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경계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제50회에서 동빈이 용왕의 두 태자중 한 명을 죽여버리고 나머지 태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용왕이 어찌 화가 나지 않겠느냐? 잠시 후면 大兵이 진격해 올 것이다”라고 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점 역시 기타 신선들과 구별된다. 더 나아가 제52회에서 나이 많은 張果老는 올빼미처럼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동해용왕이 원병을 요청하

31) 余象斗 等 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50쪽.

여 진격해 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끌어떨어진 신선들을 깨워 도망친다.

제55회에서서는 패한 용왕이 옥황상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天兵을 이 끌고 왔지만 역시나 八仙의神通력에 패하고 돌아가자 다들 들떠 있는 상황에서 張果老는 “오늘 비록 승리했지만 玉旨를 거스른 꼴이니 내일 분명 大兵이 밀려들 것이다”라고 하여 노인³²⁾의 주도면밀하고 지혜로운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민간전설에서 우스꽝스러운 張果老가 소설 『東游記』에서 이렇게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장자가 갖는 신중함과 심사숙고하는 특성으로, 이를 잘 부각시켜 張果老 본래의 신분에도 부합시키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2) 呂洞賓의 形象

『東游記』에서 무엇보다도 張果老의 형상이 너무나 선명하게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동빈의 형상이 다소 빛을 잃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세밀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제53회 ‘八仙推山築海’에서 도망친 八仙은 동빈의 계책을 받아들여 泰山으로 용궁을 덮어버리기로 한다. 잔치중에 갑자기 흙무더기가 쏟아지자 다들 남해로 도망가게 된다. 제54회 ‘龍王表奏天庭’에서 남해용왕 敖閩은 八仙의 4가지 죄(인명살해·용궁방화 및 태산을 경거망동하게 옮긴 것, 동해를 막아버린 것)를 들어 玉帝에게 表를 올리자는 제안과 함께 그 때 틈을 타서 八仙을 제거 하자는 제안을 한다. 이에 玉帝에게 表를 올리자 과연 玉帝는 대노하여 天將 趙元帥를 파견한다. 趙元帥를 극진히 대접하며 八仙의 죄를 낱알이 고해 바친다. 趙元帥는 대노하며 八仙을 쫓아 龍華會로 달려간다.³³⁾

32) 張果老의 원래 이름인 張果에 ‘老’가 첨가된 것에 주목해 보면, 八仙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 모습이 매우 늙었기 때문에 연장자의 의미인 ‘老’를 첨가하였다.

33) 余象斗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48쪽.

제47회 '八仙蟠桃大會'에서 동빈의 제안에 八仙 모두가 “그렇다”고 동의하며 동쪽으로 유람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물론 제49회에서 何仙姑의 '대바구니'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용왕의 두 아들을 죽이는 것은 동빈의 그 유명한 '寶劍'이다. 동빈은 자신의 심볼인 '보검'으로 잔인하고도 무정하게 太子 摩揭를 죽이는 주인공이 되는데, 이는 자신의 '보검'으로 민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인간에 해악을 끼치는 악의 무리를 처단하던 모습과는 달리 성격이 좀더 잔인하게 묘사되고 있다.

더 자세히 주목할 점은 남해용왕 敖閔이 八仙이 저지른 4가지 죄를 들어 玉帝에게 表를 올리는데, 그 실지 내용은 사실상 여동빈이 제안하여 주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명을 직접 살해한 것도 동빈이고, 호리병에서 직접 불을 꺼내 용궁을 방화한 것도 동빈이며, 태산을 경거망동하게 옮기자는 계책을 제안하여 동해를 막아버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여동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4가지의 죄는 玉帝의 심기를 거스리기에 충분한 것이며, 또한 제55회에서 玉帝의 사자인 趙元帥에게 동빈이 말대꾸하는 모습³⁴⁾을 볼때, 하늘의 玉帝가 보낸 天將에 맞서며 말대꾸하는 여동빈의 형상은 앞서 언급한 '鬧龍宮'의 반항³⁵⁾적 성격이 강한 주도적 형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제55회 '八仙天兵大戰'; “4가지 죄를 들먹이자 동빈은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대꾸한다. 趙元帥가 동해용왕이라고 말하자 동빈은 “어떻게 한편의 말만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한다. 꼬박꼬박 말대꾸에 대노한 趙元帥가 칼을 들이대지만 동빈은 감히 天兵과 맞서지 못하고 도망친다.” 앞의 인용문 참조.

35) 민간전설에서는 서왕모와 呂洞賓이 蟠桃大會에서 舌戰을 벌이다, 서왕모가 呂洞賓에게 패하는 고사를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는 신격변화의 핵심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도교의 上清經派(東晉時期에 창립된 도교교파)의 부상으로 부각된 서왕모 숭배에서 전진교 도파의 부각으로 呂洞賓이 서왕모를 누르는 양상으로 변모된 점을 읽어낼 수 있어 종교 교파의 흥기에 따른 신들의 숭배양상 변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왕모의 신격에 감히 반항하며 舌戰을 벌이는 자체가 바로 민중의 '반항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東遊記』에서는 이미 도교적 색채를 상실하고 삼교융합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자·서왕모·팔선 등이 서로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蟠桃會舌戰主母」, 搜集整理: 寶君秋水, 流傳地區: 泰山一帶. 陳曉動, 『中國仙話』, 1990, 154-155쪽, 내용 요약.

결국 天將 趙元帥의 칼이 땅에 떨어지는 대목에서 하늘나라의 군사인 天兵이 八仙에게 패배하고 觀音菩薩의 화해라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 또한 하늘나라의 최고신격인 玉帝와 그 다음 신격인 龍王과 용왕 다음 신격인 八仙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八仙에게 패배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불교의 觀音菩薩을 끌어오는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소설 『東游記』의 指向을 읽어낼 수 있다.

3) 나머지 신선들의 形象

그러면 나머지 신선들의 형상이 소설 『東游記』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48회 '八仙東游過海'에서 八仙이 東海의 장엄함에 어안이 병병해지지만 각자의 신통을 부려 '過海'를 한다. 이 때 藍采和가 玉板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건널 때, 갑자기 일진광풍과 파도가 치면서 玉板이 도도한 물 속으로 사라졌다. 이 때 동해용왕은 바쁘게 바다 속을 시찰하는 중에 八仙이 술에 취해 용궁을 지나면서 각종 신통을 부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용왕은 대노하며 "八仙이 감히 짐을 모욕했다. 시정의 예인나부랭이에 불과한 것들이 仙道術을 좀 얻었다고 해서 이처럼 방자하게 용궁을 소란스럽게 하다니" 하며 혼내줄 결심을 하게 된다. 한편 용왕의 太子 摩揭가 藍采和에게서 玉板을 뺏어와 용궁은 龍族과 친구들이 모여 玉板酒會를 벌이고 한바탕 신나게 마시고 흥을 돋군다. 그리고 藍采和를 가두어 버린다. 한편 값을 칠래야 칠 수도 없는 귀중한 玉板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八仙은 후회가 막급했다. 한편 용궁의 감옥에 갇힌 藍采和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자기를 깨내주고 玉板을 찾아줄 것을 나머지 신선들에게 호소한다.³⁶⁾

위의 東海龍王의 말처럼 八仙의 구성원은 市井의 예인 나부랭이에 불과하다. 이들 市井의 예인 나부랭이들이 각각 도술을 부리며 용궁을

36) 余象斗 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44쪽.

들썩거릴 때, 용왕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며, 앞서 언급한 ‘반항성’과 결부된 민중들의 통쾌함도 함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48회에서 배우출신의 藍采和는 자신의 심불인 玉板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東海를 건너다가 용왕에게 뺏기고 감옥에 갇혀 눈물을 줄줄 흘리며 호소하는 등 八仙 가운데 지극히 심약한 형상을 표출시키며 눈에 띄는 道術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八仙중 유일한 여성 何仙姑는 눈물을 줄줄 흘리는 藍采和보다 훨씬 강한 형상이 부각되고 있다. 何仙姑의 심불인 ‘대바구니’를 소설 『東遊記』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49회 ‘洞賓二敗太子’에서 동빈이 精兵을 이끌고 온 용왕의 太子 摩揭을 한 칼에 베려고 할 때 摩揭가 도망치다 何仙姑가 순식간에 대바구니를 썩여 도망치지도 못하고 동빈의 칼을 정통으로 맞고 죽었다. 패잔병이 용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크게 노하고 둘째태자를 보내지만 역시 동빈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어깨에 동빈의 칼을 맞고 도망친다. 두 명의 태자를 순식간에 잃은 용왕은 직접 10만의 精兵을 진두지휘하며 두 태자의 복수를 하려 출전하려 한다.³⁷⁾

이처럼 何仙姑는 자신의 심불인 ‘대바구니’를 용왕의 太子인 摩揭에게 썩여 동빈의 칼을 정통으로 맞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물론 민간전설에 나타나듯이 약초를 담아가지고 다니며 백성들을 구제하던 성격과는 正面으로 背馳되어 소설 『東遊記』에서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치는 성격으로 뒤바뀌지만, 자신의 심불을 유감없이 부각시키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뒤이어 소개하는 50회에서도 何仙姑는 ‘대바구니’를 사용해 호리병에 물을 담아 불바다 동해를 잠재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37) 余象斗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45쪽.

鍾離權의 경우는 한나라 대장군³⁸⁾ 출신답게 소설 『東游記』에서 병사를 지휘하는 장군으로서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다음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50회 '八仙火燒東洋'에서는 藍采和가 용왕의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할 때, 張果老는 숙연한 자세로 말한다. “용왕의 두 아들을 죽였으니, 용왕의 심기를 거스른 일이 아니고 무엇이리오! 오래지 않아 大兵이 밀려들 것이다.” 漢鍾離가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방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듯하오”라고 한다. 이 때 鐵拐李가 “당신은 원래가 전쟁에 능하니,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요책을 생각하시게나?” 이에 漢鍾離가 “내 의견이지만 자네들이 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면 된다네. 一當百, 百當千으로 밀어부칩시다. 적의 수가 비록 많지만 반드시 전군을 몰살시킬 수 있소.” 鐵拐李가 “전투에 임했을 때 안위가 경각에 달렸는데, 감히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漢鍾離가 “오늘은 다른 곳에서 援兵을 청할 필요는 없고, 우리 8명이 네 곳에 나누어 각자가 軍馬로 신통변화하여 적군의 이목을 교란시킵시다. 그래서 軍中에 깃발이 움직일 때, 사면에서 일제히 함께 나와 적군을 격파합시다.” 衆仙은 “그것참 묘한 계획이군요”라고 하며 찬성한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해용왕은 병사를 이끌고 와서 진영을 가다듬고 있다. 용왕이 출정하여 동빈을 크게 꾸짖으며 두 아들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고 소리친다. 鍾離는 급히 洞賓과 韓湘子를 좌측에 배치시키고, 藍采和와 何仙姑를 우측으로 하고 曹國舅와 鐵拐李는 배후를 맡고, 張果老는 깃발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급히 “내가 동해용왕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면 깃발을 흔들고 사면에서 출정하기를 바라오.” 전열을 가다듬고 鍾離가 스스로 선봉에 서서 검무를 추며 돌진해 나갔다. 鍾離는 용왕이 보이자마자 말

38) 正陽真人으로, 民間傳說에 의하면 그는 漢나라의 大將이었다고 하여 漢鍾離라고도 부른다. ‘雲房十試洞賓’ 故事가 있다. 이에 羅永麟은 『集說詮眞』과 『陔余叢考』의 고증에 근거하여 “天下都散漢”에서 후인들이 “漢”을 뒷 문장과 연결지어 漢鍾離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鍾離權이 결코 한나라의 장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羅永麟, 『中國仙話研究』, 上海文藝出版社, 1993, 200쪽.

도 안하고 창을 빼앗아 들고 곧장 나아간다. 鍾離는 검을 휘두르며 말을 채 적질하며 적을 맞아들었다. 두 사람은 50여 합을 겨루지만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러자 용왕의 진영에서 병장이 나와 戰勢를 鍾離에게 불리하게 하며 어지러이 돕고 있다. 張果老가 이를 보고 깃발을 흔드니, 사면에서 함성을 지르며 좌측에서 洞賓과 韓湘子가, 우측에서는 藍采和와 何仙姑, 배후에서는 曹國舅와 鐵拐李가 나오니, 용왕은 사면에 숨었던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까닭에 용왕의 병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혼비백산하여 아군끼리 서로 칼려죽여, 죽은자의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鍾離는 상황이 다급해질수록 전투를 독려하고 있으며 용왕은 전세가 불리해짐을 보고서 황망히 도망쳤다. 鍾離가 급히 추격하니 용왕은 황망히 바다 속으로 도망쳤다. 이에 鐵拐李와 洞賓은 호로병에서 불을 꺼내 바다 위에 불지르니 검은 연기가 하늘을 찌르며 올라간다. 鍾離는 또 총채로 물을 뿌리고, 何仙姑는 대바구니에 물을 가득 담아 이에 호로병에 물을 대주었다. 그러자 화염에 휩싸였던 동해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황야로 돌변하였다. 용왕은 처자를 데리고 남해로도망쳤고, 기타 고기·새우 등 어족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八仙은 병사를 철수시키고 凱旋歌를 부르며 용왕의 水晶宮을 가서 아예 진을 치게 된다.³⁹⁾

이처럼 鐵拐李가 鍾離權에게 전쟁에 능하다고 하며 묘책을 짜낼 것을 제안하는 대목에서부터 鍾離權이 구체적인 묘안을 내놓고 좌우로 군사를 배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장군답게 선봉에 서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는 모습은 맨 뒤꽂무니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 張果老의 형상과는 전적으로 相反된다. 특히 위급할수록 전열을 가다듬고 독려하는 모습이나, 총채로 물을 뿌려 불바다 동해를 잠재우는 등의 신통을 볼 때, 이 50회에서는 鍾離權이 전면적으로 부상하며 동빈이 鍾離權의 지휘하에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50회를 제외한 다른 회목에서는 鍾離權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鍾離權과 달리 鐵拐李는 제47회에서 “이 둔구어진 흥을 타서 동쪽으로 유람을 떠나자고 제안하자 鐵拐李가 좋다고 대답”하며 제50회에서

39) 余象斗 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46쪽.

“漢鍾離의 전쟁능력을 부각시키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56회에서 老君에게 구원을 청하러 구름타고 날아가는 정도로 여러 사람의 의견에 맞장구를 치며 따르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맞장구만 치던 鐵拐李는 민간전설에서 전면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흥미롭다.⁴⁰⁾

韓湘子의 경우는 제46회부터 제56회까지인 ‘八仙過海鬧龍宮’에서 그다지 부각되고 있지 않으며 제55회의 ‘八仙天兵大戰’에서 趙元帥와 鍾離權, 남해용왕에 맞서는 韓湘子가 힘을 겨루지만 승부가 나지 않는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고 있다. 하지만 제44회 ‘湘子設筵和好’에서 보이듯 韓湘子는 동빈과 종리권의 싸움에서 연회를 베풀어 화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曹國舅은 소설 『東游記』에서는 거의 출현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제45회의 득도고사와 50회에서 鐵拐李와 짝을 이루어 배후를 지

40) 『東游記』에서 다소 뒤쳐지는 듯한 인상을 주며 배후진을 지키던 鐵拐李의 신통이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간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鐵拐李가 화를 벌려 내며 늙은 용왕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소리친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용궁문 앞으로 날아가 문을 부수며 “나는 신선 鐵拐李다. 늙어빠진 용왕도적이 어찌 감히 밝은 대낮에 玉板을 훔친단 말인가? 어서 빨리 玉板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鐵拐李가 용궁을 초토화로 만들어버리겠다”라 큰소리쳤다. 용왕은 술 마시다 鐵拐李에게 콧웃음을 치며 “일개 떠돌이 돌팔이의사가 자기 다리 하나도 치유하지 못한 주체에 水府의 聖地에 와서 미친 소리를 지껄이나니, 정말 주체 파악도 못하는군!”이라 한다. 鐵拐李는 철지팡이를 바다 속에 던져 만장길이의 거대한 용으로 변화시켜 시벨진 화염을 토하여 용궁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용왕의 정예병사들이 혼비백산 흩어지며 걸음아 날살려라 하며 도망쳤다. 이에 나머지 七仙들이 鐵拐李를 따라 위풍당당 신통을 부려 늙은 용왕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南海로 도망간다. 그리고 八仙을 무시하여 재앙을 불러들인 것을 깊이 후회하였다. 하지만 천상에 구원을 요청하여 八仙은 天兵과 大戰을 벌이게 되지만, 역시 八仙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전히 玉板을 받들고 八仙을 용궁으로 초대하여 죄를 빌고 鐵拐李를 상석에 모신다. 鐵拐李는 득의양양하게 철지팡이를 총채로 변화시켜 물을 뿌리게 한다. 이로써 불바다가 된 용궁을 순식간에 구한다. 이에 呂洞賓은 옥호리병에서 만각의 仙水를 꺼내 불바다 동해의 불을 끄다”라는 또다른 고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鐵拐李의 신통이 부각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八仙過海各顯神通』, 講述: 施愚如, 搜集整理: 嚴金鳳, 流傳地區: 全國各地. 陳曉勳, 『中國仙話』, 139-142쪽.

키는 정도 이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소설 『東遊記』의 '통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宋太后的 동생으로 '國舅(외삼촌)' 신분의 曹國舅를 통속백화소설에서 마음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윤리관념을 거스르는 것으로, 작가가 曹國舅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데에 대해 다소 신분의 高下에 따른 괴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일정정도 명말 통치계급의 사상이 은연중 투영된 동시에, 明代의 사회생활과 민중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曹國舅관련 사적이 八仙중 가장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4. 小說 『東遊記』의 意義

이상의 八仙來歷과 形象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원 잡극에 나타나 는 八仙의 치열한 구도역정이 명대에 이르러 그 순수한 도교색채를 상실하고, 민간의 정서를 반영하는 오락적인 경향과 삼교융합의 특징은 소설 『東遊記』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도교분파들의 신들뿐 아니라 如來·觀音菩薩 등 三敎의 모든 신들이 다 함께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삼교융합의 정서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56회 '觀音和好朝天'에서는 상처입은 趙元帥가 玉帝에게 天將을 더 파견하여 하늘의 위엄을 되찾을 것을 아뢴다. 이 때 용왕은 如來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떠나고 玉帝는 대노하여 溫, 關元帥에게 40여만의 天兵을 龍華會上으로 파견한다. 또 馬, 趙元帥에게 20여만의 병력으로 돕게한다. 溫, 關元帥는 가는 도중에 "이 일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八仙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를 밝히자. 이 일은 누군가가 화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趙元帥가 다

소 강폭하니까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龍華會에 도착하여 먼저 예를 갖추고 그간의 사정을 물었다. 이 때 鐵拐는 老君에게 구원을 청하러 구름을 타고 날아간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중에 齊天大聖이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자 20만 天兵의 반절을 몰살시켰다. 때마침 老君과 如來가 도착해 싸움을 멈추라 큰소리치자 齊天大聖이 주춤하고 이 때 구름 타고 觀音大士가 도착한다. 老君과 如來는 굉장히 반가워하며 이 일을 해결해줄 것을 청한다. 이리하여 용왕과 八仙이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如來는 “아미타불”만을 연발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고, 老君은 “也罷也罷”만을 연발할 뿐이다. 용왕과 八仙의 쟁론이 그치지 않자 觀音大士가 老君과 如來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전부 觀音大士의 처리에 따르겠다”고 한다. 이에 觀音大士는 玉板의 가장 아름답고 하자없는 두 편을 골라 용왕에게 주면서 죽은 왕자들을 대신하여 잘 보관하라 하고 태산을 들어내어 원래의 용궁으로 복원시킨다. 玉帝에게 가서 사죄하니 “응당 벌을 받아야지만 老君과 如來의 얼굴을 봐서 이번만은 봐주겠다”고 한다. 八仙은 한 등급 강등되고 용왕은 1년간의 봉급을 감하는 벌을 받는다. 서로간에 사죄하고 이 때부터 천하는 태평을 누리게 된다.⁴¹⁾

용왕은 如來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鐵拐는 老君에게 구원을 청하러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데에서 삼교융합의 정서를 읽을 수 있지만, “아미타불”만을 연발하는 무능력한 如來와 꿀먹은 벙어리와 같이 “也罷也罷”만을 연발하는 道家之祖, 太上老君의 말을 八仙이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하늘에 대한 별로써 八仙의 한 등급 강등은 민간정서와 더 가까워지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어 그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다. 즉 신들의 계보에서 한 등급 격하됨으로써 그만큼 민중과 더 융합하는 정서로 나아가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혹자는 소설 『東遊記』의 예술적 가치로서 광대한 지역에 유포된 민간전설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²⁾

41) 余象斗等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51쪽.

42) 趙景深, 『八仙傳說』, 『東方雜誌』30卷 21號.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학적 예술성에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의의를 찾자면 개별적으로 흠어진 八仙의 득도고사를 망라했고 지금은 전하지 않아 그 면모를 알 수 없는 元人雜劇 無名氏의 「爭玉板八仙過滄海」⁴³⁾를 개편한 것으로 八仙에 대한 『東遊記』의 종합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간결한 문장으로 충분한 흥미를 전달하고 문자가 과도처럼 리듬을 타고 있는 점 역시 『東遊記』의 또 다른 의의라 할 수 있다.

소설 『東遊記』에서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의의는 하늘나라의 天兵과 龍王의 군대가 시정나부랭이 예인들에 불과한 八仙에 패배하여 결국 觀音菩薩의 중재로 태평을 누리지만 '八仙에 패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제46회부터 제56회에서 보여지는 '八仙過海闡龍宮'은 『西遊記』에서 孫悟空이 '闡天宮'하면서 玉旨를 거스르는 행위로 孫悟空의 영웅형상을 부각시키며 '반역성과 민중성'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다.

5. 結 語

本稿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民間傳說, 八仙의 개별전에 그치고 있는 小説⁴⁴⁾과 戲曲, 특히 희곡을 세분하면 宋元南戲⁴⁵⁾·元人雜劇⁴⁶⁾

43) 스웨덴 스톡홀름박물관에 소장된 Sven Broman의 "Eight Immortals Crossing the Sea,"(*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Stockholm 1978, Bulletin No. 50*)는 그림자 연극인 '影戲'의 曲辭로, 誤字와 八仙의 상징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민간에서 잘못 流轉되던 것이 文字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량의 誤字를 포함하고 있으나, 失傳되어 알 수 없는 無名氏의 「爭玉板八仙過滄海」의 전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44) 唐 『列仙傳』권6에 수록되어 있는 呂巖一條의 이야기, 元末 還初의 『列仙傳』, 개별전으로는

·明人雜劇⁴⁷⁾·明傳奇⁴⁸⁾에 나타난 八仙은 가능한 한 제한하고, 八仙을 전면적으로 다룬 소설 『東游記』에 주목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宋元 이래의 八仙은 서로 다른 문학장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元代的 雜劇인 八仙戲에서는 지고지순한 정신적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明代小說 『東游記』에서는 ‘동빈의 반항성’·‘오락성’·‘통속성’이 주를 이루며, 이미 원대의 강한 도교적 색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끝으로 소설 『東游記』에서 八仙이 보여준 형상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道家之祖인 太上老君의 말이나 萬神之主인 玉皇上帝, 그리고 佛家之祖인 如來의 말에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는 제멋대로 ‘不廳話’하는 모습으로, 八仙이 더 이상 최고신격의 구속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呂純陽이 스스로 득도하는 과정을 서술한 『呂祖全傳』(咸豐 9년(1859) 上洋道前街 寶賢堂藏板本)이 있으며 어느 시기에 창작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淸 浦松齡의 『續黃梁』과 비슷하게 고사가 한번에 끝나지 않고 지옥을 다녀오는 등 계속해서 엮여지고 있다. 오순방 외,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 중국소설연구회, 1996, 蕭相愷 述·최용철 譯, 302-304쪽)·明 通俗小說로 楊爾會의 30回本 『韓湘子全傳』(규장각본)·『張果傳』·明 洪應明 『仙佛奇踪』·羅懋登 『西洋記』·鄧志謨(1566-1618)의 여동빈 사적을 중심으로 한 13回本 『飛劍記』(원명 『鍊唐代呂純陽得道飛劍記』) 등이 있다.

- 45) 이미 散逸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宋元南戲 「呂洞賓黃梁夢」이 있다.
- 46) 八仙관련 현존하는 元人雜劇은 無名氏 『漢鍾離度脫藍采和』, 岳伯川 『呂洞賓鐵拐李岳』, 李好古 『沙門島張生煮海』, 范康 『陳季卿悟道竹葉舟』, 戴善甫 『病李岳詩酒飯江亭』(元曲選外篇), 馬致遠의 경우는 전문적인 道士로서의 자질과 문학적인 재능을 표현한 현존하는 신선도화극 「呂洞賓三醉岳陽樓」·「馬丹陽三度任風子」·「泰華山陳搏高臥」와 4인작(1절: 馬致遠, 2절: 李時中, 3절: 花李郎, 4절: 紅字李二)의 「開壇闡教黃梁夢」 등 9편이 전하고, 題名만 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紀君祥 『韓湘子三度韓退之』, 趙明道 『韓湘子三赴牡丹亭』, 趙文敬 『張果老度脫啞觀音』, 無名氏의 「藍關記」·「呂洞賓戲白牡丹」·「爭玉板八仙過滄海」(教坊編輯)·「癡李岳詩酒玩江亭」·「呂翁三化邯鄲店」·「呂純陽點化度黃龍」.
- 47) 八仙관련 현존하는 明人雜劇은 寧憲王 朱權의 「群仙慶壽蟠桃會」과 「呂洞賓花月神仙會」, 谷子敬 「呂洞賓三度城南柳」, 賈仲明的 「鐵拐李度金童玉女」와 「呂洞賓桃柳昇天仙夢」, 楊景賢 「馬丹陽度脫劉行首」, 來集之 「藍采和長安鬧劇」 등 7종이 전한다.
- 48) 明 傳奇인 蘇漢英의 「呂真人黃梁夢境記」(『曲海總目提要』卷八, 大東書局, 9쪽)와 明 湯顯祖 「邯鄲記」가 있다. 이밖에 도 무명씨의 「呂翁三化邯鄲店」과 車任遠의 四夢記중의 「邯鄲夢」 등이 있었으나 失傳되었다.

있다. 또한 시대를 거듭할수록 시대적으로 너무나 멀고 거리가 있는 신격은 숭배의 대상에서 차차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새롭고 가까운 신격이 등장하여 민중과 호홉하며 실질적인 민생구제를 펼친 신선들이 기존에 숭배되던 신격을 대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신격변화에 대한 고찰은 다음의 연구를 기약하기로 하며 이상소설 『東遊記』에 관한 논의를 맺고자 한다.

《參考文獻》

- 『呂祖全書』, 大成書局, 臺北, 1921
 『種呂傳道全集』, 自由出版社, 臺北, 1974
 葛兆光 著·심규호 譯, 『도교와 중국문화』, 동문선, 1993
 苟波, 「“道教仙傳”和“神魔小說”中的“去欲就善”思想」, 『宗教學研究·道教研究』, 1996. 3
 磯部 彰 著·나선희 譯, 『西遊記』研究史, 『東亞文化』, 제33집, 1995. 12
 羅永麟, 『中國仙話研究』, 上海文藝出版社, 1993
 막스 칼텐마크, 장원철 역, 『노자와 도교』, 까치, 1993
 范力·冷立, 『中國神仙大全』, 遼寧人民出版社, 1990
 蘇漢英, 『呂真人黃梁夢境記』, 『古本戲曲叢刊初集』
 呂洞賓著, Richard Wilhelm, C.G. Jung 共譯, 『太乙金華宗旨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A Chinese Book of Life』, USA, A Harvest / HBJ Book, 1962
 余象斗 等 著, 『四遊記』, 上海古籍出版社, 1988
 오순방 外,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 1·2권, 중국소설연구회, 1996
 窪 德忠, 『道教の神』, 平河出版社, 1987(昭和62)
 龍士靖, 「八仙의來歷」, 『文史知識』 11期, 1986(北京)
 宇野直人, 「元代道教劇瞥見」, 日本早稻田大學 中國文學會『中國文學研究』 4期, 1978. 12
 우현수, 「조선 후기 瑤池宴圖에 대한 연구」, 이대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1996
 이종은, 「고전소설에 나타난 도교적 상징」, 『한국도교사상연구회총서』 제2집, 1988
 張文澍, 「元代神仙道化劇雜劇思想特質辨正」, 北京師範大學學報, 1993
 全師圃, 『三家道教(附圖象)』,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정원지, 「원대신선도화극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2월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趙景深, 「八仙傳說」, 『東方雜誌』 30卷 21號
 陳曉勳, 『中國仙話』, 上海文藝出版社, 1990

- 車錫倫,「八仙故事的傳播和“上中下”八仙」,『民間文學論壇』1985 4期
- 湯顯祖,『邯鄲記』,『湯顯祖戲曲集』(下),上海古籍出版社,1978
- 浦江清,「八仙考」,『清華學報』,2卷 1期,1936
- Freedman, "Ritual Aspects of Chinese Kinship", *Reader In Comparative Religion : An Anthropological Approach*, 1979
- Richard Fu-sen yang, "Lu Tung-pin in the Yuan Drama", University of Washington, 1955
- Shiao-Ling Yu, "Taoist Themes in Yuan Drama(with Emphasis on the plays of MA CHIH_YUAN)",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Volume 15 No. 2, 1988
- Sven Broman, "Eight Immortals Crossing the Sea",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Stockholm 1978, Bulletin No. 50
- Valerie Hansen, *Changing Gods in Medieval China, 1127-1276*, Princeton Univ. Press, 1990
- W. Perceval Yetts, "The Eight Immortals",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ume XVII-1916.